

◇ 총 투자자 수는 총 39,152명(중복포함),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

□ 전체 투자자(39,152명) 중 일반투자자 수 비중이 93.8%(36,726명) 투자금액 비중이 52.5%(396.3억원)로 일반투자자 비중이 높음

○ '18년 일반투자자 수 비중은 93.8%(15,623명), 투자금액 비중은 58.7%(176.6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일반투자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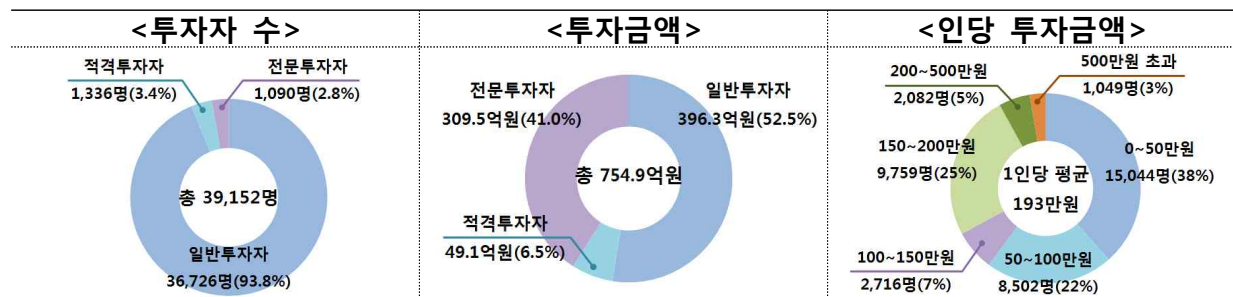
('16.1.25~'18.12.31 기준)

연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등			전체		
	금액 (억원)	인원 (명)	평균 (만원)	금액 (억원)	인원 (명)	평균 (만원)	금액 (억원)	인원 (명)	평균 (만원)	금액 (억원)	인원 (명)	평균 (만원)
'16년	76.5 (43.8%)	5,592 (92.9%)	137	11.4 (6.5%)	182 (3.0%)	627	86.6 (49.6%)	245 (4.1%)	3,534	174.5 (100%)	6,019 (100%)	290
'17년	143.2 (51.2%)	15,511 (94.2%)	92	19.7 (7.0%)	521 (3.2%)	379	116.7 (41.7%)	440 (2.7%)	2,653	279.6 (100%)	16,472 (100%)	170
'18년	176.6 (58.7%)	15,623 (93.8%)	113	18.0 (6.0%)	633 (3.8%)	284	106.2 (35.3%)	405 (2.4%)	2,622	300.8 (100%)	16,661 (100%)	181
계	396.3 (52.5%)	36,726 (93.8%)	108	49.1 (6.5%)	1,336 (3.4%)	368	309.5 (41.0%)	1,090 (2.8%)	2,839	754.9 (100%)	39,152 (100%)	193

□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

○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하여, 클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

* 5회 이상 클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가 1,332명



◇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이 후속투자 등을 유치하였고, 197개 기업은 '18년 중 535명을 신규 고용

※ 전체 펀딩기업 373개사(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19.1) 시 응답한 207개사 기준 (일자리수치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중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97개사 기준)

□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클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

* 이 중 60개의 기업이 '18년에만 총 446억원의 후속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임

** TIPS,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융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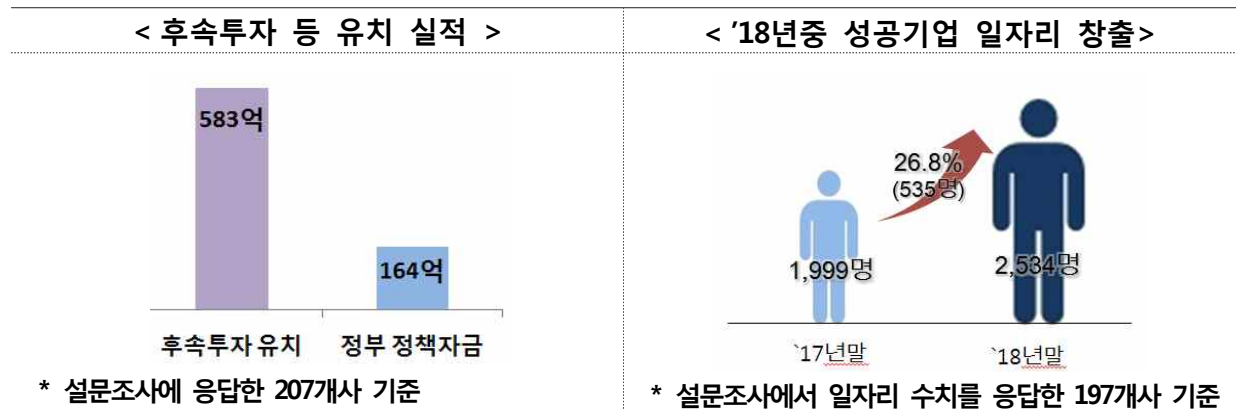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18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 (고용증가율 26.8%)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197개사('18년 창업한 11개사 포함) 기준 '17년 1,999명 → '18년 2,534명

※ '17년 20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1.04%(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이 중, '18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111개사)은 '18년에 380명을 신규 고용* (고용증가율 37.3%)

* 111개사 기준 '17년 1,019명 → '18년 1,399명



◇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 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 발생

□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88건, 127.3억원) 중 55건은 투자 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6건은 원금만 상환

○ 투자이익 발생 채권(55건) : 발행액 71.9억원, 상환액 77.9억원, 수익률 8.3%(연율 10.5%), 최고수익률* 41.2%(연율 80%)

*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사업에 투자하여 관객 376만명 동원으로 추가이자 [기본이율 10%(연율), 추가이율 70%(연율)]를 받음

○ 투자손실 발생 채권(27건*) : 발행액 49.6억원, 상환액 17.7억원, 손실률 64.3%, 원금 전액손실 10건(18.9억원)

* 예탁원이 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로, 만기일 미상환 기준이며, 만기일 이후 개별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일부 상환은 미고려

○ 원금만 상환된 채권(6건): 발행액 5.8억원, 상환액 5.8억원

◇ **[최근 동향] '19.1분기 중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 (건당 평균 2.6억원)**

□ '19.1분기 중 총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

* (건수) 전분기(53건) 대비 17.0%↓, 직전년도 동분기(48건) 대비 8.3%↓
(금액) 전분기(83억원) 대비 37.3%↑, 직전년도 동분기(87억원) 대비 31.0%↑

□ 최근 연간모집한도가 확대*(7→15억원)되면서,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하였고, 종전 발행한도(7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생

* '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모집한도가 확대됨

○ (평균 조달금액) '19.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6억원으로, '18년(1.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62.5%↑)

○ (7억원 초과 사례) '두물머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 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 모집

- 또한, '지피페스트'는 뮤직페스티벌(그린플러그드) 개최 자금 9.7억원을, '타임기술'은 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3억원을 조달

2. 향후 계획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 '18년까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채권(152건)의 68%(103건)만이 예탁원에 예탁되어 관리중으로, 그외 채권의 경우 예탁원에 발행사실만 등록한 후 기업이 자체 관리 중

○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제도소개, 펀딩정보, 펀딩통계, 한도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 크라우드넷(예탁원 운영)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금융투자협회) 및 시스템 구축(예탁원 등)

2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클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24 등)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18.6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클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19년내 추진
(현재 입법예고중(3.29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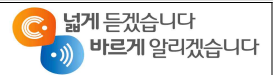
* '19.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발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투자자별 연간 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종전에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불허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

-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 (10일) 도입

-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 종전에는 발행가액 산정방법,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① 클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	① 클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② 중개업자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 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책임자 임면 의무 등 적용	② 중개업자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 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책임자 임면 의무 등 면제
③ 중개업자의 임직원에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적용	③ 중개업자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면제
④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④ 중개업자의 클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허용
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클라우드펀딩 제한	⑤ 코넥스시장 상장 후 3년간은 클라우드펀딩 허용

① 클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법률 개정사항)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기업 등)은 제외

②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등을 면제(법률 개정사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만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도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

③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중개업자와 달리 상장증권 중개가 안되는 점을 고려,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법률 개정사항)

* 상장된 지분증권, 동 주권과 관련된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비상장증권 제외)

④ 클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의 경우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허용(법률 개정사항)

⑤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장 후 3년간 클라우드펀딩 허용(시행령 개정사항)

※ (법률 개정사항)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19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 추진 (시행령 개정사항) 현재 입법예고 중(3.29 ~ 5.8)이며, '19년 중 개정 추진